

JEW'S FOR JESUS™

AustralAsian Newsletter / 2015년 4월

facebook | twitter | PayPal

민 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청년 때문에 마음 아파한 적이 있나요? 그 청년은 가족이거나, 당신의 자녀일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러한 친한 친구들이 많았고, 심지어 우리 Jews for Jesus 동료들도 그들의 탕자들 때문에 저와 함께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다니게 되었습니다. 음악 안에서 성공적인 길을 걸었지만, 저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저의 깊은 슬픔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 때문이거나 아예 그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덮어두는데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에게 걸어가서 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는 내 가족들을 알고 있었고 저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와 그의 부인은 저를 그 집에서 열리는 성경공부에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사실 그 곳은 Jews for Jesus 사무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거실의 사람들 사이에 앉았을 때, 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녹아없어졌습니다. 딱 느끼기에, 집에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 날 밤, 저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길게 말했고, 제가 그 동안 산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용서하고, 깨끗케

탕자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제 부모님도 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돌아온 탕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서, 저는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라고 배웠습니다. 8살 때 제 믿음은 진지해졌지만, 십대 때 저는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저는 파티, 친구들, 음주와 마약에 찌든 삶을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보스턴 대학의 음악과정을

어느날 학생회관 앞을 지나는데, 바로 제 앞에 Jews for Jesus 자켓을 입은 두 명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국의 빛이 저한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가만히 서서, 마치 큐빅 퍼즐처럼 제 인생의 모든 조각들이 뒤틀리다가, 갑자기 마치 우연처럼, 그러나 결코 우연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들이 끌어당겨져서 맞춰지고... 퍼즐이 해결된 것을 알았습니다.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이들 중 43%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는 이들 속으로 들어가며, 이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기를 구했고, 저는 메시아를 따르는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과 비슷합니다만, 슬프게도 아직 많은 이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이들 중 43%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이 전혀 없다고 선언하는 이들 속으로 들어가며, 이들의 숫자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메시아닉 유대인 가정에서 자란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버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Jews for Jesus는 아이들과 청소년, 그리고 젊은 청년들을 위해 18명의 선교사를 두고 있으며, 미국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전세계에 이릅니다. 그들은 매주마다 신자 가정과 불신자 가정을 가리지 않고, 수백명의 유대인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특별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사역자들은 이를 위해 특별히 훈련되었고, 이를 다룰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채팅과 SNS를 통해서, 우리의 사역자들은 그들과 채팅하며 성경공부를 통해 "만남" 수 있습니다 -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같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여름 캠프도 거기에 속합니다 - 미국과 독일에서 열리는 캠프 길갈(Camp Gilgal)인데,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역의 출발지입니다. 우리의 호주 디렉터인 Bob Mendelsohn은 1991년에 첫 캠프 길갈을 열었으며, 다른 곳으로 재배치 된 1996년까지 미국 동부에서 이 일을 맡아주었습니다.

좀 더 나이가 있는 청소년을 위하여 Halutzim 프로그램이 있으며, 우리가 캠프에서 만난 이들이 많이 옵니다. Massah 프로그램은 대학 재학 연령의 청년을 위한 제자도/단기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수백명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도움을 받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가까이 걸어가고 있음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여태까지 키울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8살부터 18살까지 참가했던 캠프 길갈 사역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압니다. 물론 그들을 가정에서 주님 안에서 키운 것 또한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저는 소망하고 믿지만, 이 특별한 사역이 제 아이들의 인생들과 전세계의 수많은 유대인 아이들에게 끼쳤던 영향을 아무리 크게 말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벤에 대해 알려드리죠. 벤은 평생 Jews for Jesus와 지냈습니다. 벤은 나이가 충분히 차기도 전에 캠프에 가고 싶어했고, 8살부터 18살까지 매년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벤이 너무도 사랑했던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했을 때, 그는 어려운 때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2013년에 그는 주님께 다시 인생을 드렸고, 그 다음 해에 자기의 인생과 믿음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여름, 그의 마지막 캠프에서 그는 대학입학을 위해 집을 떠나기 전에 세례받고 싶다고 결정했습니다. 벤은 최근 우리의 겨울 캠프에서 자기와 같은 아이들을 위하여 사역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달에 아이들과 젊은 선교사들로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돌봄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게끔 하는 이 독특한 문화에 이 아이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아이들의 믿음이 예슈아 안에서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우리 팀은, 일년 동안 가장 바쁜 캠프 사역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alutzim과 Massah의 팀 리더들은 또한 북부지역의 여름 사역을 위해 바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많은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른 이들은 그와의 더 깊은 걸어감을 시작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이가 많은 이들 중에는, 그들의 친구관계 때문에 탕자가 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여주고, 그들을 돌봄으로서, 주님을 믿지 않게끔 하는 이 독특한 문화에 이 아이들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 기도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탕자들이 돌아오고, 많은 아이들의 믿음이 예슈아 안에서 강해지고 확고해지는 것입니다.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했던 말들이, 많은 부모님들의 목소리에서 울리기를 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눅 15:24).

*Jews for Jesus는 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들에게 사역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다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 ☆ 금년 캠프 길갈에서, 성도들의 아들과 딸들 중 믿음의 문제로 괴로와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이들을 위하여. 또한 아이들에 대한 전체 사역들, 청소년과 청년들 모두를 위하여. 특히 오래 섬겼던 두 명의 캠프 책임자들이 이제 그들의 제자들에게 역할을 넘겨주려고 합니다.
- ☆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세 명의 러시아-유대계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은혜와 힘을 얻도록
- ☆ 로템과 에브라임 성도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하며, 세례를 받을 때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 ☆ 우리의 Massah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도에서 이스라엘 배낭여행객들과 의미있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 ☆ 우리의 기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은 우리가 서점, 거리, 유대인 가정, 그리고 그 지역에서 예슈아를 메시아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입니다.

샤 부웃, 즉 오순절은 유대력에서 기대가 많은 큰 날입니다(올해는 5월 24일이 되겠군요). 이 날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라고 한 세 절기 중 하나입니다. 성경적으로는, 이는 첫 열매의 추수 축제이며, 유대 전통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33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을 성취하시려고, 이 날에 성령을 부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된 권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권능은 오늘날 교회력에서 오순절 주일이라고 알려진 날에 내려왔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아주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고, 예슈아(예수)를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력에 있기도한 어느 유대기



ADDRESS INFORMATION

JEWS FOR JESUS AUSTRALIA

E-MAIL: mail@jewsforjesus.org.au WEB: jewsforjesus.org.au

Phone in Australia: +61.2.9388.0559

ALSO WORKING IN: BRAZIL, CANADA, FRANCE, GERMANY, HUNGARY, ISRAEL, RUSSIA, SOUTH AFRICA, SWITZERLAND, UKRAINE,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VOLUME 18:8, December 2014.

JFJ AUSTRALIA
PO Box 925
Sydney NSW 2001

JFJ NEW ZEALAND
PO Box 564
Rangiora 7440

JFJ SINGAPORE
Bedok Central PO Box 552
Singapore 914606

DONATIONS
Banking in Australia:
NAB: BSB: 082.067
Account: 46.072.8465

DONATIONS
Banking in New Zealand:
BNZ. BSB: 020.484
Account number:
010.6273.00

DONATIONS
Banking in Singapore:
OCBC.
Name: Jews for Jesus
Account # 581.252.897.001

We also receive donations from believers via **PayPal, Credit cards, and TT.**



JEWS FOR JESUS™





Bob Mendelsohn
Regional Director - JFJ AustralAsia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뜻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두번째 편지에서 이 독특한 어구를 썼습니다 - 오래 참으심이 구원과 동등합니다(저는 원래 미국에서 수학선생이였습니다).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후 3:14-15)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 재미있는 생각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곤경, 상황,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이해하려고 했지만, 최근에서야 이를 깨달았습니다.

멜빈*은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온 유대인 의사입니다. 그는 부인과 40년째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시간을 휴스턴에서 살았습니다. 부인은 어렸을 때 크리스찬이였지만, 결혼했을 때는 공식적으로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을 수 년 동안이나 간절히 바란 끝에, 그녀는 루터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는 그녀의 집을 방문했고, 전 주일예배에 참석한 것을 감사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 때 그는 처음으로 멜빈을 만났습니다. 성격이 좋아보이지만 의외로 만만치 않았던 멜빈은 켄 목사에게, 자기 집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자기를 얽어매지 말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멜빈은, 여전히 믿지 않고 있었지만, 근처 침례교 교회에 나가고 있었고, 성가대에서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 텍사스에서 두 주 동안 그 루터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였을 때, 멜빈은 초청받아서 참석하였습니다.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멜빈은 예수님께 그 인생을 드리기로 하였으며, 바로 그 다음 주일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여든살 이상 되신), 누이와 딸들에게 참석할 것을 요구해서 말입니다. 이는 새로운 믿음을 선포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멜빈이 '준비된' 것을 오래 기다리시는 것이 얼마나 선한지요.

몇 년 전 헌터 밸리 지역에서 나딘*은 동네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갔고, 그 교회의 목사 그리고 성도 몇 명과 친해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더욱 친해졌지만, 나딘은 항상 교회에 나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선교사 중 한 명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으며, 그 목사는 나딘을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 메시아를 전하는 것을 보려고 온 것입니다. 그 만남은 그녀를 도와주어서, 그녀의 인생을 예수아께 드리고,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에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녀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선교사 라헬 랜드룸은 그녀의 아버지인 사미 허쉬엔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는 루마니아에서 태어나서, 2차 세계 대전 중 몰도바에 있는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용소 안에 있던 남자들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에게 전도하였습니다. 라헬은 회상합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메시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첫 유대인을 바로 그 처절한 수용소 한 가운데서 만났다니요. 40년 후에 우리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서 평안한 얼굴로, 그 사랑에 반응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40년 오래 참으심이 새미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나누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웃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여러분의 의사나 약사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필요로 하고,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나딘들과 멜빈들과 새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이 예수아에게 "네"라고 말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마침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아멘?

*가명임